

# ‘조화사회(和諧社會)’의 그늘

- 梁鴻의 《中國在梁庄》에 보이는 중국 농촌\*

千 賢 耕\*\*

---

◁ 목 차 ▷

---

- I. ‘조화사회(和諧社會)’의 그늘 - 농민공과 그들의 고향 이야기
    - 1. 중국 경제 발전과 농민공
    - 2. 농민공의 고향 이야기 - 梁鴻의 《中國在梁庄》
  - II. “고향에서 헤매다” (‘迷失’在故鄉)
    - 1. 고향의 변화 - 요동치는 ‘폐허’(蓬勑的‘廢墟’)
    - 2. 장소상실과 이방인
  - III. 새로 쓰는 고향이야기 - 非虛構의 진실 찾기
  - IV. 결론
- 

## I. 조화사회(和諧社會)의 그늘 - 농민공과 그들의 고향 이야기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만 해도 궁핍과 낙후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비약적 경제 성장을 이루며 초강대국으로 변신하였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국가가 세계의 생산공장이자 소비시장으로 변하면서 30년 사이 100배 넘게 몸집이 커졌다. 이제는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으며, 2030년에는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그들의 전망은 어렵지 않게 실현될 꿈으로 보인다.<sup>1)</sup>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623)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세계은행 산하 국제비교프로그램(ICP)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분석한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올해 말 미국을 제칠 것이라고 보도했다.(2014년 4월 30일) 중국의 GDP는 PPP(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의 주요 요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었고, 그 제공자는 바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 출신 노동자'들이다. '農民工' 혹은 '民工'이라 불리는 이들은 도시 변두리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도시 노동자들의 1/3에 해당되는 저임금으로 3D업종에 종사하며 중국의 도시화·산업화를 이끌어 낸 주역이다. 그러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자(工人)'가 아닌 '농민 출신 도시거주 근로자(農民工)'이기 때문에 도시민으로서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도시와 국가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나날이 커져만 가는 도시민과 농민공의 생활수준 격차,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황폐해지는 농촌 등 현 중국의 비약 발전 뒤편에는 농민, 농민공, 농촌이라는 희생자가 존재한다. 중국 호구제의 특성상 도시 호구를 발급받지 못한 도시의 이방인인 농민공들은 최소한의 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멸시·대립·소외의 열악한 생존조건에 불만을 터뜨리며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어가고 있다.<sup>2)</sup>

후진타오 정권의 통치이념인 '조화(和諧)'는 알다시피 공정하고 조화롭다는 뜻이다. 2005년 이후 새로 등장한 개념어로 사전에 실릴 만큼 온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사회 각 분야에 슬로건이 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조화사회'에 가장 부적절한 존재, '조화사회'의 그늘이 있으니, 바로 '농민공'인 것이다.

한편 건장한 노동력이 도시로 떠나간 농촌에는 그들의 자녀와 더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기 힘든 노인들만 남아 가난과 소외 속에 외로이 생존하고 있고, 산업화·도시화 추진을 위한 新농촌개발의 강제성은 농촌의 전통적 생산방식과 생산구조, 정서·문화적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

총체적으로 현 중국의 농촌은 위기상황이며, 농촌과 농민을 바탕으로 출발했고

고 가정할 때 상품 구매 능력,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기준으로 2005년 이미 미국의 43%, 2011년에는 미국의 87%까지 도달했고, 중국의 고속 성장과 미국의 둔화 성장을 비교할 때 올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망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 미국은 1872년 영국을 추월해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등극한 지 142년 만에 중국에 자리를 내주게 되는 셈이다. <중권신문>, <아시아 경제> 2014년 4월 30일 기사

2) 羅嶼 〈對話梁鴻農民進城后,反而更加農民化〉:「農民工」已經成爲一個包含着諸多社會問題,歧視、不平等、對立等複雜含義的詞語,它包含着一种社會成規与認知慣性。」(《小康》,2013年 3期)

발전해온 중국에 있어 농촌의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도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국가 발전의 쾌속질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한 전문가들이 그들의 처우 개선, 호구 문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이, 학계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으로<sup>3)</sup>, 영화·문학작품 등 예술계에서는 그들의 처참한 생존 조건과 감성을 그려 낸 문화텍스트의 산생으로<sup>4)</sup>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본 논문은 ‘진실한 농촌의 변천사’<sup>5)</sup>로 평가받는 梁鴻의 《中國在梁庄》을 통해 농민공의 생존상황, 그리고 그들의 고향인 농촌, 농촌 주민의 이야기를 통해 현 중국 농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농)민공」, 「하층서사」 등을 논할 때 꼭 거론되는 작품으로 발표되자마자 2010년 《亞洲周刊》非虛構類 10대우수도서, 2010년 新浪10대 우수도서, 2010년 《新京報》 우수 문학도서로 선정되었고, 2010년 ‘茅台杯’, 《人民文學》非虛構類 작품상 등을 수상하며 열띤 환영을 받았다.

## 1. 중국 경제 발전과 농민공

중국은 농업국가였고, 농촌은 중국 문명의 원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며, 중국 공산당 역시 농촌·농민과 함께 출발, 성장했다. 그러나 더 이상 「농업국가」라고 칭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절반에 미치지 못하던 도시화율<sup>6)</sup>이 지난 2011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도시형사회를 주체로 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3) 중국은 농민공과 관계된 워낙 넓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므로 논하지 않는다. 국내 관련 학위 논문의 경우 역시 농민공의 사회경제적 권리, 농촌에 남겨지거나 부모를 따라 이동하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경제개학과 농민공의 역할, 도시에서의 주변화 등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 요)

4) 농민공의 상황을 그린 尤鳳偉의 《泥鰱》, 王安憶의 《富萍》, 羅偉章의 《大嫂謠》, 陳應松의 《太平狗》, 賈平凹의 《高興》, 熊焱의 《民工》, 劉慶邦의 《紅煤》, 北村的 《憤怒》, 盛可以的 《北妹》, 劉慶邦의 《神木》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그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盲井》(2003.감독李楊), 《生存之民工》(2005.管虎/康寧), 《泥鰱也是魚》(2006.楊亞洲), 《落叶歸根》(2007.張楊), 《農民工》(2008年.陳軍), 《癡狂的賽車》(2009.宁浩), 《人在囧途》(2010.叶偉民) 등

5) 艾里香《還原真實的中國鄉村-評梁鴻》: 「可以說, 這是一部真實的鄉村變遷史。」(中國作家網, 2010年 12月 9日)

6) 2007년에도 도시화 수준은 44.9%5를 넘지 않았다. 중국시장협회조직(中國市長協會組織)의 중국 도시 발전 보고(2007) 분석. 《中國網》 2008년 3월 31일

뿐만 아니라 개혁과 발전의 무게중심이 도시로 이동한 후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거의 5대 1로 확대되었다.<sup>7)</sup> 불균형 발전이라도 결론적으로 전체 중국의 부강을 꿈꾸었던 ‘먼저 부자가 되어도 좋다(先富起來)’는 덩샤오핑의 개혁 구상은 고속 성장이라는 현란한 빛 뒤편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계층 간 격차의 확대, 도·농 분리, 이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 증가라는 그늘을 만들어냈다.

도시화·산업화 우선의 발전계획에 따라 도시는 노동력이 필요했고, 인구대비 경작 토지가 부족했던 농민들은 다른 생존수단을 찾아야했다.<sup>8)</sup> 노동력을 투입해도 소득에 변동이 없는, 한계생산력이 ‘0’인 경우에는 아무리 낮은 임금이라 해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잉여 노동력의 농촌탈출은 산업화를 거친 60~70년대 한국 뿐 아니라 제3세계 발전의 요인이 되기도 했으니, 중국의 경우 농촌 잉여 노동력의 도시이동 결과 농민공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의 등장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한 ‘개인의 선택’이라 말할 수 없기에, 도시민과 농민공과의 갈등과 충돌, 농민공과 그 가족들의 아픈 이야기를 도외시 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sup>9)</sup>

농민공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도시 하층 근로자이므로 ‘農民工’ 혹은 ‘외래 노동자(外來工)’ 등으로 불리는데, 이는 일종의 ‘직업’ 개념일 뿐 아니라, ‘농민호구를 가진 자’, 즉 일종의 ‘신분’을 지칭하기도 하며,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삶을 이어가는 새로운 현대판 신분제, 즉 ‘하층계급’을 지칭하기도 한다. 주민을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 두 가지로 나누는 二元호적제도<sup>10)</sup>가 조성한 농민공의 호적상 신분은

7) 1985년 1.9 대 1이었던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2011년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과 농민의 일인당 순소득 비례) 3.13에 달한다. 그러나 농민 수익의 대부분인 생산 수단 구매 지출을 빼면 현재 중국의 도농주민 소득차이는 무려 5.2배에 달한다. 〈中國城市發展報告(2012)發布〉,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研修網〉, 2012년 8월 14일.

8) 6장 2절 153쪽: 「우리 량광촌만 하더라도 각 성씨마다 1300~1400명, 약 3~400 가구가 1畝도 받지 못했으므로 경제적으로는 주로 외지 노동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光說咱們梁庄自然村, 各姓全部加一塊兒, 共一千三四百人, 三四百戶, 人均不到一畝. 經濟方面, 主要靠外出務工.」, 《中國在梁庄》

9) 4장 3절 102-103쪽: 「개혁개방 이후에는 ‘인력수출勞務輸出’이란 단어가 현지경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외지로 나가야만 노동자들이 돈을 벌고, 그래야 현지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뒤에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인생만사와, 셀 수 없는 생명이 헛되어 사라지는지는 고려의 범위 안에도 넣지 않는다.」

10) 중국의 호구는 둘로 나뉘는데, 농촌 호구는 정부가 땅만 빌려주면 되지만 도시 호구에

‘농민’이지만 토지를 떠나 도시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도 아니고 완전한 도시 노동자도 아닌, 「도시 속의 非도시인(城里的非城里人)」이며, 도-농 이원구조(城鄉二元結構)의 제3신분인 것이다.<sup>11)</sup>

현재 중국의 농민공은 2억 7천만 명에 육박한다.<sup>12)</sup> 인구 대비 어마어마한 농민공 숫자는 중국 농촌의 불안정성, 낙후함, 노동력의 비합리적 분포 등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2천609위안(약 46만 원) 수준인데<sup>13)</sup> 도시노동자와의 단순 비교는 무리하다. 농민공은 정상적인 도시의 공장 근로자인 ‘工人’과는 달리 비정규직 하층노동자이므로 의료혜택이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혜택도 주어지지 않은 채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낮은 임금과 국가의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많은 농민공들이 천막으로 만든 간이숙소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의료혜택이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힘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의 삶은 「닭보다 먼저 일어나고, 고양이 보다 늦게 자며, 당나귀 보다 힘들게 일하고, 돼지 보다 안 좋은 걸 먹는다.<sup>14)</sup>」

의료·교육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평생을 가난한 이주노동자 신세로 살아야 하는 이들은 잠재적인 사회 불만세력으로 분류된다. 임계점을 지나면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농민공의 시위는 더더욱 정부와 도시민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가난한’ 농민에서 ‘가난한’ 노동자로 변신한 이들은 노동의 혜택을 나눠받지 못한 채 개혁개방의 암초와 같은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냉대와 경멸의 시선까지 아울러 받고 있다.

는 일자리를 나눠줘야 한다.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는 외부 遷移는 호구 변동이 없는 내부 轉移보다 한층 까다롭다.

- 11) 陳映芳 〈農民工-制度安排与身份認同〉, 《社會學研究》, 2005年 第3期
- 12) 2014년 人力資源社會保障部(인사부) 통계에 의하면 2억 7천만 명에 육박한다. 중국 총인구인 13억 6천72만 명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이들 가운데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공은 1억 6천600만 명으로 전체 농민공 중 62%를 차지한다.
- 13) 〈2013年中國農民工總量達2.69亿人 月均收入2609元〉, 《中國新聞網》 2014年02月 20日
- 14) 「起得比鷄還早, 睡得比貓還晚, 干得比驢還累, 吃得比豬還差。」〈中國農民工調查: 性壓抑是感情生活的一大痛楚〉, 《瞭望東方周刊》, 2005년 10월 15일

독일 학자인 루이링거는 《중국을 보는 제3의 눈(第三只眼看中國)》에서 농민공에 대한 차별이 결국 중국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 이미 오래전에 예견했는데<sup>15)</sup>, 불행히도 그 예견은 현재에도 유효한 듯하다.

농민공의 문제는 비단 자기 세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모를 따라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의 자제는 유동(流動)이동, 이주(遷移)이동, 동반 이동 등으로 불리는데, 이들이 처한 생존 상황 역시 심각하다. 현재 혹은 앞으로 '신세대 농민공'으로 성장할 이들은 농민 호구이지만 부모 세대와는 달리 농촌이나 토지에 대한 애착이 거의 없다. 그러나 역시 도시민으로도 편입될 수 없는 이중적·중간적 신분이다. 이들이 처한 불평등·비인간적 노동환경과 교육상황, 범죄와의 접근가능성, 정체성의 혼란 등의 심각하고도 많은 문제들은 편폭 상 관련 분야의 연구에 넘긴다.

## 2. 농민공의 고향 이야기 - 梁鴻의 《中國在梁庄》

작가 梁鴻의 고향인 梁庄은 허난(河南)성 량(穰)현에 자리한 아름다운 자연과 학문적, 문학적 분위기가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현대화의 거대한 물결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변화는 자연파괴 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의 쇠퇴, 정서적 황폐화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작가는 부모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간 후 고향에 남겨진 아이들의 삶, 열악한 환경과 비합리적 제도 때문에 폐교와 합교 과정을 거치며 점차 부실화·황폐화되는 시골 교육, 이를 통해 낙관적일 수 없는 중국 시골의 미래를 보여준다. 아울러 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농사까지 지어야 하는 농촌 노인들의 고된 삶, 남자들이 떠나간 빈 마을에 남겨진 여인들의 상황·심리가 그려진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환경파괴와 정부의 대책, 지방행정 관리들의 행정처리 등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밖에 기독교도를 통해 농촌의 종교 활동과 문제점, 현대화와 개인의 정신세계의 자유 등을 생각해보기도 하며,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강요하는 새

15) 농민의 생활수준이 도시 경제생활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기에 농민들은 도시에서 심한 소외감과 복수 심리를 갖게 되며, 이런 심리는 그들이 도시인이 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범죄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을 보는 제3의 눈》, L. 루이링거 지음, 최평 김용권 옮김, 소나무 출판, 1995년, 96쪽.

로운 장례제도와의 충돌을 통해 정책 운영의 융통성에 대해 논하기도 한다. 작가는 현 중국 농촌의 상황과 문제점들을 거의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현 중국 농촌의 실상과 문제를 이해하는 통로, 강제로 소멸·당한 수십만 개 마을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sup>16)</sup>

작자는 어려서부터 풀 베고 돼지 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민이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범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베이징 사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은 20세기 고향인 허난河南 지역의 문학현상·문학작품·작가에 관한 것이었다.((外省筆記:二十世紀河南文學)) 고향 지역의 문화적 공통점과 대표 작가·작품을 다루었으니, 고향에 대한 깊은 애착,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학문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평탄하게 살아오던 작가는 언제부턴가 자신의 작업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농촌에서 시작된 문제들, 아니 중국의 모든 문제들이 농촌으로 귀속되어 들끓고 있는 상황에 무관한척 살아가는 삶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워진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난 내 일에 회의를 느껴왔다. 이런 허구로 가득차고 현실·자연·영혼과 아무 관계도 없는 생활에 회의를 느낀 것이다. 심지어는 수치스럽기도 했다 ... 나의 사고의 깊은 속에서 늘 어떤 소리가 나를 계속 일깨우고 있었다: ‘이건 진정한 삶이 아니야, 사람의 본질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삶이 아니야라고. 이러한 생활은 내 마음을 점차 고향에서, 가장 사랑하는 고향으로부터, 가장 광활한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고향 穰縣 梁庄 마을에서 이십년을 살았는데, 그곳을 떠난 십여 년 동안 항상 그리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명 가장 깊은 곳, 가장 아픈 감정이어서 주시하지 않을 수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없었다. 특히 수만 개의 그곳이 갈수록 중국의 병균의 온상지가 되고, 갈수록 중국의 비애가 될 때는 말이다.’<sup>17)</sup>

16) 郭建光〈大國敝村〉: 『人民文學』雜誌主編李敬澤評價道: “不會認識梁庄, 我們或許就不會認識農村, 不會認識農村, 何以認識中國?” 三農問題專家溫鐵軍認為: “這本書, 寫梁庄, 只是最近30年‘被消滅的40万个村庄的縮影.’”, 《中國青年報》2011년 1월 5일

17) 〈前言-從梁庄出發〉 1쪽: 「在很長一段時間內, 我對自己的工作充滿了懷疑, 我懷疑這種虛構的生活, 與現實, 與大地, 與心靈沒有任何關係. 我甚至充滿了羞耻之心 ... 在思維的最深處, 總有個聲音在不斷地提醒我自己: 這不是真正的生活, 不是那種能夠體現人的本質意義的生活. 這一生活與自己的心靈, 與我深愛的故鄉, 與最廣闊的現實越來越遠. 我的故鄉是穰縣梁庄, 我在那里生活了二十年. 在我離開故鄉的這十几年

이에 작가는 방학을 이용해 고향으로 돌아가 동네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일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그들의 심리와 정서는 어떤 상태인지 직접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을 채록하여 현대화 과정 속에 소외된 농촌, 고향 梁庄을 소개한다.<sup>18)</sup> 이 작품은 기존 지리서와 역사서에 적힌 단순한 고향 '소개'가 아니라 친인척,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살아온 삶을 통해 마을의 과거와 '현존'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 II. “고향에서 헤매다”(‘迷失’在故鄉)<sup>19)</sup>

작자는 고향마을에서 농민으로 살다가, 도시로 나가 농민공이 되었다가, 다시 농민으로 돌아온 어르신들의 이야기, 혹은 한 가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삼촌·오빠·후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농민공으로 살고 있는 이웃의 이야기도 적었다. 하지만 주민의 ‘입을 빌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털어놓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마을을 떠난 주민, 즉 ‘농민공’ 보다는 고향에 남겨진 나머지 가족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은 농민공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농민공의 고향(가족)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다.

### 1. 고향의 변화 - 요동치는 ‘폐허’(蓬勃的‘廢墟’)<sup>20)</sup>

작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겁기만 했다. 고향에 대한 추억과 애뜻한 사랑

中, 我也无時无刻不在牽挂着它. 它是我生命中最深沉而又最痛苦的情感, 我无法不注視它, 无法不關心它, 尤其是, 当它, 及千千万万个它, 越來越被看成是中國的病灶, 越來越成爲中國的悲傷時.」《中國在梁庄》(이하 작품명 생략)

18) 前言 2쪽: 「2008年和2009年, 利用寒暑假, 我回到梁庄, 中原一个偏遠、貧窮的小村庄, 踏踏實實地住了將近五个月. 每天, 我和村庄里的老人、中年人、少年一起吃飯說話聊天. 對村里的姓氏成份、宗族關係、家族成員、房屋狀態、个人去向、婚姻生育做类似于社會學和人類學的調查, 我用脚步和目光丈量村庄的土地、樹木、水塘与河流, 尋找往日的伙伴、長輩与已經逝去的親人.」

19) 1장2절 제목, 5쪽

20) 2장 제목, 23쪽



을 품고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환경 속에서 생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에 긴 여정도 힘들지 않았다.

대자연과 합해져야만 생명의 의미와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적 형상이 도드라질 수 있다. 그곳에서는, 당신은 작디작지만 위대하며 또한 영원하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기 때문이다. ... 穰縣에 곧 도착한다. 이곳은 내 여행의 출발점이다.<sup>21)</sup>

고향 마을에 대한 애뜻한 집착은 일반적으로 ‘향토애’나 ‘향수’라 부르지만, 지리학에서는 좀 생소한 ‘장소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때의 장소란 고향집이나 마을, 내가 즐겨 찾던 지리적 장소, 찻집 등 문화적 지점 모두 포괄하는 개념일 것이다. 내가 자라나고, 마음속에 품은 장소에 대한 감정인 장소감은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근원이자,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자신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을 구성한다.<sup>22)</sup>

그런데 고향에 도착하는 순간 너무나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기차역과 주변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쪽쪽 뻗은 도로, 높아진 집들에 부조화를 느끼며 혼란스럽기만 하다. 90년대부터 도시 기초시설 건설강화에 따라 대대적인 정비공사가 진행되었고<sup>23)</sup>, 그 결과 작자가 찾아간 고향은 전혀 낯선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이 특히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그의 정체성, 안정감 등 내부세계의 모든 것도 아울러 흔들리게 된다.

- 21) 「只有和大自然融爲一體時，生命的意義，人類生存的本質形象才顯現出來，在那里，人是渺小的，也是偉大的，更是恒久的，因爲人就是其中的一部分. ... 穰縣就要到了，這是我旅程的第一站.」1장 3쪽
- 22)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 에드워드 켈프 지음, 김덕현·김현주·심승희 번역, 논형출판사, 104쪽.
- 23) 8장 도입 211쪽 ; 「2006년까지, 량현穰縣 신농촌 건설新農村建設이 첫 효과를 거두다. 전체 현 행정마을의 아스팔트 도로를 실현하였다. 농촌보수村庄整治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로 910km를 수리하고, 웅덩이 179곳을 메꾸고, 마을 등급의 공원 118곳, 문화찻집 300곳, 메탄가스 저장소 3800곳을 지었으며, 유선 텔레비전을 설치한 집도 5700가구, 태양열 온수기는 8700대를 설치하였다. 3400만원을 투자 하였고, 정보마을信息村 건설을 건설하게 추진하여 정보마을 330곳을 건설하였다. 마을 급 유치원, 화장실, 상업 서비스망, 파출소, 촌민 활동장소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차츰 완벽하게 갖춰, 마을 모습과 소양을 새롭게 변화하였다」《2007年穰縣政府工作報告》

더구나 성년 이후의 유랑시절, 직업과 생활의 동기이자 활력·목적이 되어주었던 고향마을의 이름답고 활기찬 풍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 넓혀진 길과 새로 지은 집들도 있지만, 많은 주민이 직업을 찾아 도시로 떠나갔기 때문에 마을은 오히려 황량하기만 하다. 게다가 농촌 건설을 위한 사골 채취, 모래 채취로 고향의 산과 강은 파헤쳐지고, 농촌경제를 부흥시킨다고 지어진 공장들에서 뿜어내는 매연과 폐수는 고향을 더 이상 추억 속의 아름다운 장소로 놔두지 않았다.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사라졌다. ... 숲 속의 노루, 호수, 오리들, 갈대밭, 모두 언제부터인지 모두 사라져 버렸다. 강물은 가면 갈수록 말라갔다. ... 강물은 시커멓고 반짝거리며 석유 같았고, 오랫동안 쓰고서 빨지 않은 걸레 같은 색이 났다. ... 강물 전체에서 끔찍한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 이 냄새는 근처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두통과 질식, 구토를 유발했다.<sup>24)</sup>

너무나 변해버린 고향마을의 모습은 “만약 가족과 집, 친지의 무덤이 없다면 이곳이 20여년 살아온 마을이란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였고, 그래서 작자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sup>25)</sup> 작자의 방향 상실(「迷失」의感覺)은 너무나 변해버려서 찾아내기 힘든 마을 구조, 모습 등 실제 지리적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향을 가슴에 품었던 시간과 추억, 그에 대한 사랑, 고향의 산과 들에서 형성된 정체성의 혼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작자는 꿈에 그리던, 회상 속에서 익숙했던 고향에서 “여기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며 길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작자는 자신의 두 눈으로, 농촌의 역사, 농촌의 변화, 고통, 슬픔을 보여주고 싶었다. 현대사회의 엄청난 변화, 정치개혁, 현대화가 농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결과 농촌이 어떻게 스러지고 바뀌고 찢겨지며 폐허화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것이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인지 찾아내고 싶었던 것이

24) 2장 4절 40쪽 : 「有一天, 這一切突然消失了. ... 那林中的小鹿、湖洼、野鴨、芦葦蕩, 不知什麼時候, 都消失了. 河水越來越少 ... 河水黑亮亮的, 像汽油, 像常年擦拭·却從來沒洗過的抹布的顏色... 整個河道上散發着一種可怕的臭味兒 ... 這些氣味使所有走近的人禁不住頭暈·窒息·嘔吐。」

25) 1장 2절 8쪽: 「如果不是有家人, 有老屋, 有親人的墳在這里, 我几乎不敢相信這是自己生活了二十七年的村庄. 走在路上, 我總是有「迷失」的感覺, 沒有歸屬感。」

다.<sup>26)</sup>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추억을 잡아 조금한 마음으로 기록과 조사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시골에 남겨진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어두운 방으로, 게임기와 컴퓨터 모니터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잃어버린 농촌에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노년 인구나 다치거나 병을 얻어 돌아온 농민공 부상자들만 굶뜬 동작으로 움직일 뿐이다.

폐허처럼 변해버린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 분위기는 파괴된 자연환경만큼 충격적이었다. 穰縣은 1991년 9월, 인력수출개발회사(勞務輸出開發公司)가 세워지면서 인력 수출을 시작했다. 농민은 토지를 버리고 도시 건설과 산업 부흥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러 떠난 것이다.<sup>27)</sup>

처음 농민공이 탄생하게 된 것은 잉여 노동력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것이었다. 부족한 경작지로 생산소득이 줄어들자 농민은 다른 생존 방법을 찾아야했고, 도시는 노동자를 필요로 했으므로 농촌에서 남아도는 잉여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도시로 간 농민공은 놓고 있는, 남아도는 잉여인력이 아니었다. 「농촌이라는 거대한 물탱크는 끊임없이 싱싱한 노동력을 방출하고 부상당한 잔여 인구를 흡수한다. 그러므로 방출된 것은 잉여노동력이 아니었다. 농촌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잉여노동력인 것이다.」<sup>28)</sup>

26) 前言 2쪽: 「我希望, 通過我的眼睛, 村庄的過去与現在, 它的變与不變, 它所經歷的歡樂, 所遭受的痛苦, 所承受的悲傷, 慢慢浮出歷史的地表. 由此, 透視当代社會變遷中鄉村的情感心理、文化狀況和物理形態, 中國当代的政治經濟改革、現代性追求与中國鄉村之間以什麼樣的關係存在? 一个村庄如何衰敗, 更新, 离散, 重組? 這些變化中間有哪些与未來、現代相聯系, 而哪些, 是一經毀滅, 就永遠不會再有, 但對我們民族來說又非常重要的東西?」

27) 4장 도입 77쪽: 「1991年9月, 穰縣成立勞務輸出開發公司. 1993年, 市開發公司成立勞務市場, 29个鄉·鎮·辦均成立勞務站. 1996年12月, 市勞務輸出開發公司更名爲第二職業介紹所. 至2000年, 共進行崗前和轉崗培訓1.8万人次, 輸出城鄉行業青年和富余勞動力219.6万人次, 創經濟效益11.44亿元.」《穰縣縣志·大事記》

28) 宋桂花 〈梁庄:中國現代鄉村的一份‘活檔案’—評《中國在梁庄》〉: 「農村这个大水庫不停地放出新鮮的勞動力, 而吸收傷殘病余人口. 所以出來的不是剩餘勞動力, 而留守家里的才是剩餘勞動力. 這導致了農村虛空化, 農業生產沒落了, 使農村生活蕭條了, 使農村的脊梁給抽掉了. 事實上, 留守村庄的多是些最老實也最讓人看不起的人, 他們的存在類似于那个將家安在墓地的昆生, 常被視爲鄉村的邊緣人而被遺忘.」,《山花》, 2013年 2期, 135쪽)

‘싱싱한 노동력’들이 도시로 떠나버리자 농촌은 활기를 잃어가고, 주인 떠난 빈 집에는 자물쇠가 녹슬어 간다. 갈수록 사람이 적어져 결국 황량한 풍경 속에서 꿈틀거리는 형체는 그저 쇠약한 노인들뿐이다. 고향마을은 점차 空洞化되는 중이다. 마을은 더 이상 유기적 생명체가 아니라 점차 생명력과 활력을 잃어가는 죽음의 존재처럼 느껴졌다.<sup>29)</sup> 현재의 고향 농촌은 작자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대자연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급격한 변화에 「요동치는 ‘폐허’가 되어버린 시골마을(蓬勃的‘廢墟’)」이었던 것이다. 보통 「왕성한」으로 번역되는 「蓬勃」지만, 여기서는 외적 내적 변화에 「요동치듯 몸부림치는, 변화무쌍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게다가 강조의 역할을 하는 따옴표는 「蓬勃」가 아니라 「廢墟」에 붙어있다.

언제부터 시골이 민족의 짐이 되었는가? 개혁과 발전, 현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되었나? 언제부터 시골이 하층·변두리·질병의 대명사가 되었나? 또 언제부터 하루하루 황량하고 적막해져가는 농촌을 떠올리면, 도시의 어둠 속 변두리와 기차역에서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농민공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지게 된 걸까?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긴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역사의 모순과 잘못이 포함된 것일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의 고통과 외침이 포함된 것일까?<sup>30)</sup>

작자는 농촌이 ‘만신창이’라는 것을, 전체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들이 농민과 농촌에 집중돼 있음을 깨닫는다.<sup>31)</sup>

29) 1장 21쪽: 「村庄里的新房越来越多, 一把把鎖无一例外的生鏽着; 与此同时, 人也越来越少, 晃動在小路·田頭·屋檐下的只是一些衰弱的老人; 整个村庄被房前屋后的荒草·廢墟所統治, 顯示着它內在的荒涼·頹敗与疲憊. 就內部結構而言, 村庄不再是一个有机的生命体, 或者, 它的生命, 如果它曾經有過的話, 已經到了老年, 正在逐漸失去生命力与活力。」

30) 前言 1-2쪽: 「從什麼時候起, 鄉村成了民族的累贅, 成了改革、發展与現代化追求的負擔? 從什麼時候起, 鄉村成爲底層、邊緣、病症的代名詞? 又是從什麼時候起, 一想起那日漸荒涼、寂寞的鄉村, 想起那在城市黑暗邊緣忙碌, 在火車站奮力擠拼的无数的農民工, 就有悲愴欲哭的感覺? 這一切, 都是什麼時候發生的, 又是如何發生的? 它包含着多少歷史的矛盾与錯誤? 包含着多少个生命的痛苦与呼喊?」

31) 前言, 3쪽: 「我并不認同鄉村已經完全陷落的觀點, 但是, 不可否認的是, 鄉村的确是千瘡百孔的. 我也并不認爲農民的處境已經到了最艱難的地步, 但是, 整个社會最大

작자는 고향 마을의 변화에 충격을 받고 휘청거리지만 다시 일어선다. 이곳은 먼 훗날 내 아들에게도 고향이 될 곳이기 때문이다. 고향이란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며, 세상을 향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sup>32)</sup>

## 2. 장소상실과 이방인

작자의 기억 속의 梁庄은 순박하고 평화로운 장소였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만신창이가 된 쇠락해가는 마을이었다. 하루하루 변화하고 파괴되며 나날이 낮설어지는 농촌은 梁庄만의 상황이 아니라 현 중국 농촌의 보편적인 모습이였다.

賈平凹는 고향 西安을 무대로 《秦腔》을 지었는데, 그 역시 농촌의 거대한 변화를 감당하기 힘들어했다. 그의 고향은 소박하고 인정이 두터운 곳이었지만,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러한 형상은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없어졌다. 거대한 사회 변혁기에 도시에 나쁜 현상이 나타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고향은 사라졌다.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돌아가서 발견한 지금 농촌은 도시만 못하다.」<sup>33)</sup>

내 삶과 어울리지 않는 환경은 낮설고, 곤혹스러우며 동화되기 힘든 삶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환경은 곧 현대화 사회 속의 ‘이방인’의 신분을 더욱 깨닫게 해줄 뿐이다.<sup>34)</sup>

---

的問題又確實集中在農民及鄉村那里. 与此同时, 政府對於農民工, 對於鄉村的种种政策和努力似乎都无濟于事, 鄉村在加速衰落下去, 它正朝着城市的范本飛奔而去, 仿佛一个个巨大的贗品,」

32) 2장 1절 29쪽; 「在將來, 不就是他們的故鄉嗎? 或許, 這正是他們的文化, 他們的世界的起点.」

33) 賈平凹·鄒元寶, 〈關於《秦腔》和鄉土文學的對談〉, 《上海文學》, 2005年第7期. 「但這幾年回去發現, 變化太大了, 按原來的寫法已經沒辦法描繪. …我記憶中的那個故鄉的形狀在現實中沒有了. …在社會巨變時期, 城市如果出現不好的東西, 我還能回到家鄉去, 那里好像還是一塊淨土. 但現在我不能回去了, 回去后發現農村里發生的事情還不如城市. 我的心情非常矛盾.

34) 제1장 6쪽, 「但是, 我也知道, 這只是我的回憶而已. 永恒的村庄一旦被還原到現實中, 就變得千瘡百孔, 就像這寬闊的高速公路. …那一輛輛飛速駛過的汽車, 与村庄的人們沒有任何關係, 反而更加强化了他們在這現代化社會中「他者」的身份.」

뿐만 아니라 나 역시 변했다는 사실은 작자를 힘들게 했다. 나는 이제 이미 내 고향 마을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며, 농촌사람도 도시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매년 고향을 찾아가지만, 그들은 작자를 보면 낯설어하고 경계한다. 그는 벌써 「다른 세상의 사람」인 것이다.<sup>35)</sup>

아침에 일어나면 무겁고 무기력한 느낌이 든다. ...해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좀 더 오래 있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언제나 도망치듯 후다닥 떠나곤 한다. ... 마을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농촌의 심층적 구조는 그들 속으로, 그들의 언어 체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 마을에 남은 몇몇 어르신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도 그분들 마음은 두꺼운 성벽 같아 들어가기 어렵다는 기분이 든다. 어르신들은 외부인이자 목적을 지닌 나를 마주하면 저절로 침묵하게 되고, 감정의 교류가 없으니 같은 입장에 놓이지도 못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시 화제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 거의 失語 상태가 된다. 그분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나는 이미 마을 외부의 사람인 것이다. 나의 사유와 그들의 사유는 항상 엇갈린 상태로 존재한다.<sup>36)</sup>

물론 작자는 마을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야만, 귀향자의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친숙·가족의 감정으로 녹아들어가야만 농촌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향에 더께더께 쌓인 중국의 온갖 문제들, 다중의 복잡함은 관찰이 아닌 체득으로도 이해조차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sup>37)</sup> 「대지로의 회귀重回大地」라든가 「농촌으로의 귀환重回村庄」처럼 거창한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마을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도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주민들의 거리두기와 배척 때문만이 아니었다. 작자 스스로 시골사람에 대한 도시인으로서의

35) 3장 3절 62쪽: 「對於他們來說, 我已經是另一世界的人了。」

36) 8장 1절, 212쪽 「清晨起來, 有一種沉重和乏力之感... 年年回家之前, 總是下定決心多呆些時候, 但每次都逃跑似的匆匆走了...和村庄的人們在一起, 但是, 我却感到似乎無法進入他們的話語系統. 鄉村猶如一張大網, 綱和目太多, 無從下手. 面對...村庄的一些留守老人, 也覺得她們的內心是一座深厚的城堡, 難以進入. 或許, 面對我, 這樣一個外來者和有某種目的的人, 她們自然地處於沉默, 我們不處於同一立場, 也沒有情感的交融. 面對這種情況, 我也不知道該如何重新回到話題之中, 幾乎處於失語狀態, 對於她們, 我已經是鄉村外部的人. 我的思維和他們的思緒總是處於錯位之中。」

37) 前言 2쪽: 「當你不以偶然的歸鄉者的距離觀察, 而以一個親人的情感進入村庄時, 才發現, 作為一個長期離開了鄉村的人, 你并不了解它。」

우월감, 지저분하고 낙후한 농촌생활에 대한 불쾌감을 떨쳐낼 수 없었고<sup>38)</sup>, 그 때문에 진정 그들 속으로 녹아들지 못하고 곁돌았던 것이다.

물론 작가의 깨달음과 계속된 노력으로 그 거리와 소외감은 점차 좁혀지고, 농촌 출신으로서의 정체감과 자부심 역시 다시 강하게 살아난다.

한편, 작가가 변화된 삶의 방식과 그것이 초래한 인식과 감성의 변화로 고향 마을과 사람들에게 속속히 녹아들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걸도는 것처럼, 도시로 이주해간 농민공 역시 정체성 상실로 헤맨다.

근대사회는 이주의 시대이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삶의 형식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 현상은 익숙한 곳의 테두리를 벗어나 낯선 곳을 향해 떠나는 과정인 것이다. 도시로 이주해간 농민공들은 디아스포라(diaspora)의 처지에 있으며, 결국 디아스포라 주체는 분열적인 자아를 가지게 될 수도, 이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섞여 들어간 도시의 시민들은 기득권층으로서 외래인구의 유입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촌인구의 유입으로 과부하상태에 이른 사회 기반시설, 자원의 부족, 여기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도시민의 우월주의 심리도 농민공에 대한 적대감에 영향을 미친다. 정정당당한 도시민 신분이 아닌 농민공은 「도시라는 대지에서 이방인인 것이다」<sup>39)</sup>

진공 주머니에 갇혀 세상과 격리된 이 기분,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중 나를 아는 이 하나라도 있을까? 이 도시의 숲에서 난 한 마리 개미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함부로 밟히고 무시당한다. 그 누구도 당신이란 존재를 모르고, 그 누구도 당신에게 가족이 있으며, 당신이 사랑을 품고 있고, 생각을 할 줄 알며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임을 모른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다, 집을 벗어난 한 노동자의 생각인 것이다. ... 올해 다시 북경에서 1년을 일하고 나면 다시는 어찌됐든 이 진절머리 나는 곳에 와서, ‘사람 아닌’ 이런 삶을 살기는 싫었다.<sup>40)</sup>

38) 8장 1절, 213쪽, 「即使你抱着‘重回大地’·‘重回村庄’的目的, 即使你想回到他們中間, 做他們的一分子, 但几乎是不可能的. 你无法摒弃自己的优越感和城鄉生活的差异而帶來的某种嫌弃感。」

39) 羅嶼 〈對話梁鴻農民進城后, 反而更加農民化〉: 「因為他們在城里‘偷’生活, 他們是這片大地的陌生人。」(《小康》, 2013年 03期)

40) 4장 1절 89쪽 5절, 「如置身于一个真空的袋子內, 与世隔絕. 路上來來往往的人, 都

개체와 친밀하게 연결된 공간, 특별한 의미를 담은 정서적·문화적 공간이기도 한 '장소'는 개체에게 정체성의 통일, 안정감 등 많은 것을 부여해주고, 그때 느끼는 진정한 장소감이란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sup>41)</sup> 농민공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현재적 삶의 공간이자, 꿈과 이상을 키우는 미래의 공간인 도시는 그들이 '자신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고향 역시 사전적 의미, 혹은 전통적 감성적 의미의 고향과는 다른 공간으로 변해버린 상태였다. 고향의 극심한 내적 외적 변화는 다중적 의미의 고향 상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감, 안정감, 연대감까지 앗아가 버리는 고향상실은 그런 의미에서 소외와 유사한 개념인 것이다.

### Ⅲ. 새로 쓰는 고향이야기 - '非虛構'의 진실 찾기

梁鴻의 이 작품은 非虛構類 작품으로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오랜 시간에 걸친 꼼꼼하고 반복적인 실지조사와 실제 주민의 인터뷰를 채록해서 작성하여 그 진실성과 사실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현대 농촌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진면목, 너무도 빠른 변화의 속도는 문학적 상상이나 기교로만은 표현하기 힘들었기에 이러한 형식을 택한 것이다.<sup>42)</sup> 작가는 중국 농촌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 형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끝에 역사서와 기록의 활용, 현장조사와 인터뷰 등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최

和自己素不相識。在這個城市里，我簡直像一個螞蟻，沒有人關注，被隨意踐踏·蔑視。沒有人知道你的存在，沒有人知道你還有親人，還是一個有着愛情，思念，有着悲歡離合的人！這就是我的感受，一個離家別鄉的打工者的感受。明明有親人，有朋友，有愛人，明明只有一天一夜的路程，却感覺是千里之遙，不僅僅是距離的遙遠。今年再在北京干一年，以後無論如何再也不來這個鬼地方，過這種'非人'的生活。」

41) 《장소와 장소상실 (place and placelessness)》, 에드워드 렐프 지음, 김덕현·김현주·심승희 번역, 논형출판사, 150쪽.

42) 舒晋瑜·梁鴻〈鄉村的疼痛〉:「첫 번째 원인은 이 시대의 발전과 변화가 너무 커서 생활 속의 위기와 변화가 문학 자체의 상상을 뛰어넘고, 기기묘묘 다채로운 현실 역시 작가의 상상력을 뛰어넘기 때문이다.(第一層原因, 我們這個時代發展變化特別大, 生活中的危机和變化超出文學本身的想象, 光怪陸離的現實也超乎作家的想象之外.)」, 《文學自由談》, 2011年02期.



대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목소리 속에 담긴 진실을 찾아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sup>43)</sup>

이 작품은 <들어가는 말(前言)>과 <后記>를 뺀 본문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마다 공통되거나 유사한 주제를 둘러싼 4~6개의 인물과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마지막에는 작자의 분석과 소감 등이 덧붙여져 소결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여덟 개의 각 장은 여덟 단락의 <穰縣縣志>의 기록으로 시작되고, 이를 통해 다음에 등장할 내용을 개괄한다.<sup>44)</sup>

양현(穰縣)은 하남성 서남측의 남낭(南囊)분지중부에서 약간 서쪽에 위치해 있다. 지리 좌표로는 북위 32.22-32.59도에, 동경111.37-111.20 사이에 위치해 있고, 남북으로 96킬로, 동서로 67킬로, 총면적 2294.4km<sup>2</sup>에 달한다. ...지세는 대체로 서북면이 높고 동남면이 낮고, 지면 평균 경사면이 1/800~ 1/1200이다... <양현현지-개술(穰縣縣志-概述)><sup>45)</sup>

이러한 특징은 본 작품이 사실과 실제 기록에 입각한 사실적인 ‘非虛構類’창작임을 강조해준다. 역사적 사건과 지리적 특성에 대해 고대 역사서·지리서·현(縣) 기록 등을 인용한 각주 작업은 인문학자이자 사학자라는 작가의 특성과도 관계될 것이며, 문학작품보다는 사학연구에 가깝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고, 짧지 않은 편목의 기록을 그대로 옮기는 구성은 ‘느슨하고 지루하다’<sup>46)</sup>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사실적 기록을 중시하는 창작태도는 인물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성

43) 舒晋瑜, 梁鴻 <鄉村的疼痛>: 「在寫作的時候, 我也改了好幾種文體, 一開始是日記體, 寫了十幾萬字, 記錄每天做什麼, 和誰談話, 但是感覺這種方式不足以呈現他們的存在狀態. 後來我把日記體舍棄, 又換為純抒情體, 最後才是現在這種有人物自述·觀察·素描·議論等結合在一起的雜糅的文體. 我覺得其中的人物自述非常重要, 應該讓鄉村農民說出自己的生活·情感和痛苦.」《文學自由談》, 2011年 02期

44) 2장 蓬勃의 ‘廢墟村庄’은 村鎮建設 부분, 3장 今天的‘救救孩子’는 人民法院少年審判庭新聞資料 부분을 인용하는 등 앞으로 펼쳐질 내용과 관계되는 실제 판방기록을 서두에 실어줌으로써 작품의 실제성을 강화하며 구성상의 연계성을 피하고 있다.

45) 1장 「我的故鄉是梁庄」 도입 1쪽

46) <散文: 在場精神的時代意義>: 「它的結構比較松散, 基本上用力平均, 沒有切入点, 沒有重點.」《文學報》, 2011年09月29日 星期四 第13면 綜合

으로 나타난다. 부친의 입을 통해 가족의 역사, 마을의 성씨구조, 나아가 공산당의 정치투쟁사까지 들려준다.

또한 이렇게 새로운 내용, 에피소드가 등장할 때마다 관련된 인물을 소개하고, 그 인물이 주제와 얽힌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한다. 이렇게 각각의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다보니 현대의 정치적 사건들(放匪, 挖底財, 대약진, 四清運動 등)을 통해 중국 현대사가 동시에 전개되기도 하고, 또한 1장 4절 ‘한 마을의 생존경쟁(一个村庄的生存競爭)’에서는 「80년대 말기와 90년대 초반에 양장 사람들이 대규모로 외지로 나가 일을 하러 가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梁庄에도 불어닥친 대규모 인력 이동, 즉 농민공 현상이 자세히 언급된다. 뿐만 아니라 농민공의 ‘회귀回歸’현상으로 인한 농촌 공동화현상(人去樓空), 젊은 인력이 빠져나간 농번기 부녀자의 打工隊 조직, 부부와 부모자식의 생이별(夫妻分离, 父母与孩子分离), 90년대 초기 ‘유랑민 물결(流民潮)’, ‘신세대 농민공(第二代打工者, 新生代農民工)’의 이야기도 다루어진다.

책 표지의 「어떤 중국은 北京에 있고 어떤 중국은 重慶에, 서북지방에, 연해지방에도 있다. 그러나 더욱 많은 중국은 梁庄에 있다!」<sup>47)</sup>라는 문구처럼 중국의 수많은 모순과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작품의 제목 《中國在梁庄》은 「모든 중국의 모습, 현상, 문제가 梁庄에 다 있다, 「중국을 들여다보는 창, 梁庄」, 「梁庄, 중국 요지경」 등의 만연체적 관형어를 붙여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예민하고도 복잡한 이 문제들을 제기할 때, 작자는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梁庄」이라는 마을의 변화, 집안사람들과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현 중국의 가장 뜨거운 문제들을 들려준다. 그 전달 과정은 작가의 전지적 시점에 따른 설명이나 논평보다는 대부분 등장인물 스스로의 언어를 통한 서술을 거치며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 작품이 획득한 사실성의 결정적 요인은 ‘실제’ 일어났던, ‘실명을 가진’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데 있을 것이다.<sup>48)</sup>

47) 「有些中國在北京, 有些中國在重慶, 有些中國在西北, 有些中國在沿海, 但, 更多的中國在梁庄!」

48) 舒晋瑜, 梁鴻〈鄉村的疼痛〉: 「가장 기본적 차이는 보고문학과 기실문학은 사회의 중대사건과 대운동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며, 중요 인물과 중요 사건을 기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허구 창작은 개체적이고 보통의 인생과 생명개체에 더욱 관심

한편 작가가 채용한 「실록식의 인터뷰(一篇篇實錄式的訪談)」는 진실하고 생동적이라는 장점 외에 또 다른 큰 의미가 담겨있다. 그것은 바로 마을사람들 각자에게 입을 열어 말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작가가 직접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이다. 梁庄 사람들 각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단지 각각의 서술 부호로 간략화될 것이기에 살아있는 각각의 개체로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다.<sup>49)</sup> 이 작품은 농촌의 갖가지 「목소리」를 수록한 책이다. 때문에 어떤 평자는 책을 펼치면 「마치 실수로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처럼, 각종 임무를 지닌 목소리들이 얼굴로 날아드는 것 같다.<sup>50)</sup>고 평한 것이다.

이 작품의 또 다른 두드러지는 특징은 대화에 인용부호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인물의 발언은 인쇄 필체를 바꾸어 표기하고, 때로는 이조차 지켜지지 않아 누구의 말인지 판단하기 헷갈릴 때가 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등장인물 아무개의 이야기」임을 표시해주는 인용부호가 없으니, 어느 것이 인물의 이야기인지, 어느 것이 작자의 논평인지 서술인지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자의 불편을 짐작하면서도 굳이 이런 표기형식을 사용한 작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을 듯하다. 즉, 등장인물의 이야기, 그가 들려주는 슬픔과 고통, 불만과 항의가 담긴 이야기들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의견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발화자가 모호한 상태에서는 그 발화의 권리 역시 모호해지며 뒤섞이며 나뉘어질 수 있게 된다. 작자의 목소리, 의견, 학자적 논평 등, 외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의 삶과 감정을 작

을 쏟는 미시적 서사로서 가리워졌던 것, 투명하지 않았던 것의 발굴에 치중한다.(可能有一点最根本的區別是：報告文學和紀實文學更關注社會大事件和社會大運動，以重要人物和重要事件為基本對象，而非虛構更關注個體的、普通的人生和生命，是微觀的書寫，致力於考察被遮蔽的東西和尚未澄清的事物.)」, 《文學自由談》, 2011年02期, 119쪽

49) 李冬雪 〈梁庄新‘影像’-進城農民的命運和表情〉: 「我們了解到生活在梁庄鄉下的人的生活和命運。但梁庄人很少作為鮮明的‘生命個體’被書寫，他們被淡化為一個個敘述的符號。」, 《中國圖書評論》, 2013年06期

50) 李冬雪 〈鄉土社會時代的傷口-從[中國在梁庄]到[出梁庄記]〉: 「《中國在梁庄》就是一本收錄了鄉土社會各種‘聲音’的書。因而，一打開書，仿佛失手打開了潘多拉德盒子，一瞬間里面各種任務的‘聲音’都像長翅膀，襲面充耳撲來。菊秀說，五奶奶說，建昆嬭說…」, 《紅岩》, 2013年04期

가의 검열망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겠다던 의지를 실현하는 선택인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은 현 중국의 중대 문제들(외지로 떠난 농민공과 농촌 잔류아동, 노인, 부녀자의 교육, 심리 등을 비롯한 농촌문제, 농촌문화의 쇠퇴와 그 대안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루는 내용적 특성과 '비허구 소설', '현장(在場)산문'이라 불리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순문학과는 구별되는 이성 중심의 냉철한 서술과 분석이 주를 이룰 거라 예상된다. 그러나 막상 글을 읽으면 고향 풍경이나 과거 회상과 관련된 서정적인 묘사에 많은 편폭이 할애된 것을 알 수 있다.

비가 이틀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내렸다. 빗물이 씻어 내려간 평원은 상쾌하고 깨끗했고, 나뭇잎과 농작물은 초록색으로 반짝였다. 어둑어둑한 하늘은 차단막이 되어 조용하고 광막한 세상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굶었다 가늘었다 하는 가랑비 속을 헤치고 갔다. 세계는 그렇게도 작고 또 무궁무진했다. ... 맨발로 모래 길 위를 밟으면, 곱고도 축축한 모래가 발바닥에 조금씩 배겨 따끔따끔하고도 간질간질한 게 아주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강물은 팔팔 힘차게 흘러 힘과 희망으로 가득찬 듯 했고, 거대한 갈대숲은 빗물에 씻겨 중후하면서도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빗속의 강은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아득히 넓으며 영원한 깨끗함을 지니고 있었다.<sup>51)</sup>

모든 절과 장마다, 사건 경위의 기록과 비슷한 분량의 섬세하고 정서적인 경물, 심리묘사가 전개된다.<sup>52)</sup> 이는 비허구 작품에 문학적 무게를 부여하여 중심을 잡아

51) 「整整下了兩天的雨。雨水洗刷下的原野清新、干淨，樹叶、庄稼都綠得發亮，灰暗的天空形成一個封閉、安靜而又寥闊的世界。而我們就在這時大時小的雨霧中穿行。世界那麼小又那麼無窮無盡...赤腳踩在沙土路上，細細的、濕濕的沙石，輕硌人的腳，微疼微痒，感覺非常舒服。河水嘩嘩奔騰過去，充滿力量和向往，那巨大的蘆葦叢接受着雨水的冲刷，穩重而又充滿生命力。雨中的河，升騰着霧氣，蒼茫無邊，却又具有永恆的清新。」 7장 3절 188쪽

52) 작자는 「농촌을 제대로 이해하고 농촌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사람은 농촌 출신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지녀야 한다」는 논설적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서정적으로 표현한다. 「난 농촌에서 태어나 가정환경은 빈곤하고 힘들었지만 항상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 두꺼운 먼지 밑에 깔린, 농촌 생활의 어떤 내재적인 진실과 모순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해주었는데, 이 진실과 모순을 일반적 의미의 방문객들은 모를 것들이다. 그건 마치 비밀번호와 같아서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마을의 도로와 저수지, 밭에 익숙하고, 또 매년 매달 마을 어귀의 그 푸른 돌에 다리를 무수히 빼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다.我常常想，生長于農村，家庭貧困而多難，我是有福的。它使我更深体会到那掩盖在厚厚灰塵之下的，鄉村生活某种內在的真實与矛盾，這一真實与

준다. 문학은 언어예술이고, 언어에 대한 구사능력은 작가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히 비허구작품에서 언어가 흡인력이 없다면 작품은 창백하고 무미건조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풍광 묘사와 서술이 단지 문체상의 특징만은 아니다. 작자에게 「고향」은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의미로 가득 찬 장소였고, 사랑과 슬픔, 아름다움과 상처가 공존하는 공간이었기에, 고향의 자연풍광과 유년시절의 추억에 대한 서정적인 묘사는 문학적 미화가 아니었다.<sup>53)</sup> 작가의 기억 속의 사랑과 추억을 그대로 옮겨 낸 것일 뿐, 의도적 미화가 아니었던 것이다.

문학과 사학, 감성과 이성의 병용 등의 균형 감각은 특히 인물 묘사,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 찬 인물의 묘사와 설명 부분에서도 돋보인다. 고통과 비참함으로 가득 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숨을 내쉬는 공감을 자아내고, 작가 역시 감탄이나 동정, 비판적 시선을 완전 배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격정을 토해놓지는 않는다. 작가가 대변인으로서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그의 입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쏟아내게 하는 형식적 특징과도 관계가 있다. 작가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관찰하고 들어준 후 문체점을 조곤조곤 풀어나간다. 거창한 사상적 갈등을 표면화한다거나 중국 미래 방향에 대한 예견을 보여주기 보다는 쇠락해가는 고향마을, 그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고향의 한 집안 한 집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놓기에 특정한 정치적 의도나 문학적 경향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느낌을 준다. 이는 고통이나 「고난」에 대한 과장 없이 냉정한 필조로 당대 농촌의 진실성과 복잡성을 펼쳐내어, 현실 속에서 당대 농촌문제의 복잡성을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단일화, 유형화의 허

矛盾是一般意義的訪客所無法獲知的。它就類似于密碼，只有出生于這一村庄，熟悉這一村庄的道路、坑塘、田地，和年年月月走過村頭那塊青石板并在上面歲了無數次脚的人才能够体会到。」231쪽 〈后記〉

53) 劉莉 〈怎奈故鄉變他鄉-梁鴻訪談〉: 「복잡한 갈등상태를 그려내려 했다. 그러나 난 여전히 내 기억 속의 또 다른 면-자연환경에 대한 사랑과 아름다운 추억-을 따르고 있다. 시골, 특히 한 인간의 고향으로서 그것은 사랑이자 슬픔이며, 아름다움과 상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것은 절대 미화가 아니다. 我試圖在文本中呈現出一種複雜的糾纏狀態. 但是我還遵循我個人記憶的另一面, 即我對自然環境的愛和美的回憶. 鄉村, 尤其是作為一個人的故鄉, 它是一個愛與悲, 美與傷的存在地. 這並不是美化.」, 《中國圖書評論》2011年06期

구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sup>54)</sup>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서술 역시 마찬가지다. 주로 담당 관리, 혹은 마을 서기, 지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 스스로가 쏟아내게 하고 작가는 주로 들어 준다. 때문에 인터뷰라는 미약하고 온건한 대처가 불만스럽고, 문제만 제기했지 해답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sup>55)</sup> 비록 신랄한 비판이나 전문적 분석, 확실한 대책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작자가 끼어들기보다는 해당지역, 해당기관 담당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 의도였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제공을 통해 잘못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그 잘못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느끼게 할 수 있다면, 허구장르든 비허구장르든 문학작품의 소임은 이미 일정 정도 해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풍경을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sup>56)</sup>라는 평가는 바로 작가의 창작의도가 성공적으로 체현되었음을 알려준다.

게다가 작가는 고향 조사, 인터뷰 내내 작은 목소리지만 입바른 말을 하였고, 특히 책임이나 권한이 있는 인물과 대면했을 때는 강한 불만제기와 더불어 해법을 요구해왔다.<sup>57)</sup>

54) 呂曉洁, 〈現代村庄的另類呈現—評梁鴻《梁庄》〉: 「几乎已自然注意手法對家鄉的村庄作了鮮活的呈現, 使我們看到一個活生生的梁庄世界. 作者沒有夸大的村庄的苦難, 也沒有盲目詩化故鄉的現實, 而且以冷靜的筆調, 以更加自由開放的敘事形式展現了當代農村的真實性, 複雜性, 讓我們在現實中看到了當前農村問題的複雜性, 避免了單一化, 模式化的虛.」, 《作家与作品》, 2011年05期

55) 主編 〈散文: 在場精神的時代意義〉: 「작자의 사고는 비교적 표층적이다. 작품에 그려진 잔류아동, 노인, 민공 등의 문제들은 모두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수리문제를 쓰면 그녀는 수리국 국장과 대화를 썼는데 평이었다. 또한 환경오염, 아동 익사, 토사채굴 등의 문제도 섭급했는데 비교적 표층적 문제였다.作者的思考還是比較表層. 作品里面寫的留守兒童、老人、打工等等問題, 都沒有深入進去. 她寫水利問題, 寫與水利局局長的對話, 就很平淡, 而且涉及的話題也就是環境污染、孩子溺水、挖泥沙等比較表層的問題.」, 《文學報》, 2011年09月29日 星期四 第13頁 綜合

秋實 〈觸摸中國鄉村的痛與悲—讀《中國在梁庄》〉: 「梁庄이 겪은 변화 역시 향토 중국과 현대성 충돌의 축소판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 자체에 대해 그녀 역시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梁庄所經歷的變化也恰恰是鄉土中國與現代性衝突的縮影. 但對於這種衝突本身, 她自己暫時給不出任何答案.)」, 《中國合作經濟》, 2012年10期

56) 王石川 〈不了解農村何以認識中國〉: 「但是如果不是《中國在梁庄》這本書的面世, 有多少人會了解這些場景, 有多少人會關心他們的命運?」, 《中國工人》, 2011年02期

물론 梁鴻의 서사기법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거나<sup>58)</sup>, 혹은 문학적 한계와 취약점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혹자는 문학과 사학의 학제간 통섭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작자 역시 이 작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문학과 사학 양자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일부 독자와 평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던 것을 다행스러워 한다.<sup>59)</sup> 작가는 지식이나 개념, 사상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아닌,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진실을 가장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하려 노력했다. 「사람들이 내 책을 읽은 후 그 광활한 대지위의 생명에 대해, 대지 위의 문화 양식이 쇠미해져가는 것에 어떤 아픔을 느꼈다면 이 책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sup>60)</sup> 그의 창작동기는 「향촌의 현실을 드러내자는 것이었지 문학적 야심은 없었다.»<sup>61)</sup> 그 목적은 「보여주는 것」이었다.<sup>62)</sup>

#### IV. 결론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현대화·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것이며, 그 발전의 주춧돌이 농촌 출신의 농민공임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눈부신 뒤편의 농촌에 드리운 그늘은 너무도 어둡다. 농촌의 피폐화와 황량화는 농촌

57) 8장 3절 222쪽; 「我忍不住問起廠長, 這樣是否有危險? 有沒有什麼辦法解決?」

58) 阮梅는 3년 넘는 실제 조사를 거쳐 잔류아동의 양육문제, 문화환경, 성장환경개선 등의 사회문제를 다룬 《世紀之痛:中國農村留守兒童調查》(人民文學出版社, 2008년 5월1일)라는 르포르를 발표하여 큰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59) 舒晋瑜, 梁鴻 〈鄉村的疼痛〉: 「사실 이 책은 순수 사회학서적보다는 깊이가 덜하고, 전형적인 문학텍스트도 아니다. 다만 사회학적 실증과 문학적 감정이 결합될 수 있어서 독자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다. 其實, 這本書并不比純粹社會學更深刻, 也不是典型的文學文本, 但可能正是社會學實証和文學的情感兩者結合, 才打動了讀者心靈.」 《文學自由談》, 2011年02期

60) 羅嶼 〈對話梁鴻生活在都市-我們應當有原罪感〉: 「如果大家看了書后, 心里對那一片廣闊土地上的生命、對土地上的文化式微產生某種痛感, 那麼, 這本書的目的就達到了.」, 《小康》, 2011年01期

61) 舒晋瑜, 梁鴻 〈鄉村的疼痛〉: 「我自己創作《中國在梁庄》的初衷就是要呈現鄉村的現實, 沒有文學的野心.」 《文學自由談》, 2011年02期

62) 劉莉 〈怎奈故鄉變他鄉-梁鴻訪談〉: 「我的最大目的是展示, 呈現.」, 《中國圖書評論》 2011年06期

사람들을 고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고, 비합리적 호구제도는 농민을 뿌리도 추억도 정신적 귀착점도 없는 이방인이 되어, 이도 저도 아닌 이중적 신분으로 도시와 농촌 그 어딘가의 경계에서 헤매게 만들었다.

《中國在梁庄》은 농민공이 떠나가고 남은 농촌, 농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껌진하게 들려주어 현 중국 농촌의 상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고민하게 했다.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향을 떠나간 농촌 사람들을 뒤쫓는다. 1년 반 동안 전국 십여개 省市에 흩어져 살아가는 350여명의 梁庄 출신 농민공들을 실제 찾아가 그들의 삶을 기록하여 작품으로 완성했다. 《中國在梁庄》이 출판된지 3년 후 세상에 나온 《出梁庄記》(花城出版社, 2013.3.)가 바로 그것이다. 이 작품은 《中國在梁庄》과 더불어 중국의 감춰진 또 다른 절반을 읽을 수 있고, 두 편의 梁庄 기록을 통해 전체 중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평을 받는다.<sup>63)</sup>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농민공의 문제, 농촌의 문제는 중국의 지속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 역시 일찍부터 농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다. 국가의 발전이 더 이상 일부 대도시 경제 발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그로 인한 농촌문제의 심각한 각성도 뒤따랐고, 비록 미약하나마 농민공의 인권과 관련된 노동분야의 처우 개선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현 중국의 주석인 習近平은 개혁 과로서 국무원 부총리를 역임했다가 좌천되었던 부친 習仲勳의 영향 아래 지속적으로 개혁을 주장해왔다. 특히 清華大學 人文社會學院 졸업 때 발표한 박사논문 《中國農村市場化研究》(2001년12월)에서는 호구제의 부당함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그 주장은 지금까지도 일관된다. 따라서 호구제의 재정비가 필히 뒤따를 것이고, 이는 농민공을 시작으로 중국 농촌의 모습 또한 바꿀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中國在梁庄》은 중국을, 특히 농촌을 들여다보는 창구라는 평가처럼 현대 중국의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魯迅의 외침을 차용한 제4장 「今天的‘救救孩子’」는 농촌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장은 4개의 절로 나뉘어 청, 장년층 노동인력이 도시로 떠난 후 황폐한 농촌에 남겨진 두 부류 사람들의 이야기

63) 谷亞光 〈抒寫隱形的中國—評梁鴻《出梁庄記》〉: 「你讀過梁鴻的《出梁庄記》, 了解了中國隱形的另一半, 你才能稱得上了解了大半个中國? 《出梁庄記》是一部真實反映我國轉型期經濟社會特征的傑作!」, 《社會科學論壇》, 2013年12期



가 다루어진다. 부모가 도시노동자로 떠나면서 남겨진 손자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농촌 노인들의 이야기가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부모가 떠난 후 고향에 남아 친인척에게서 길러지는 유아, 아동, 청소년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들이 사라진 농촌에 남겨진 여성들의 심리상태, 性의 위기, 호구제와 산아제한이 합쳐져 빚어낸 낙태 문제, 여권 문제 등도 그려진다. 이밖에 새로운 도덕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매장 금지, 화장 실시 정책의 문제와 양상, 농촌 문화재 정비 운동 등에 관한 이야기들도 담겨있다. 다만 편폭의 제한으로 다음 기회로 넘기고자 한다.

《中國在梁庄》이 보여준 사실성은 감동과 동시에 아픔을 준다. 수많은 독자들은 「작가가 우리 앞에 펼쳐놓은 것은 한 폭의 농촌 풍경화이다. 인물들, 이야기들, 운명들은 사무치게 진실하고 몹서리치게 아프며,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sup>64)</sup>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정작 작자는 고향마을의 농촌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미래를 낙관한다. 지지분한 시골을 끔찍하게 싫어하며 밭도 던지 않으려하던 도시출생의 아들이 햇살과 바람 아래, 농촌의 아이들과 뛰어놀며 하루하루 까맣게, 건강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고향을, 고향의 건강한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 고향, 시골마을은 후손의 건강과 직결되는 「한 민족의 자궁」<sup>65)</sup>이기 때문이다.

### 【參考文獻】

- \* 편폭의 제한으로 핵심적인 자료만 표기함  
 권경선 <중국의 사회관리제도를 통해 본 농민공에 대한 사회 공간적 배제 : 베이징 성 중촌과 거주 농민공을>  
 김세훈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에 관한 연구 : 1995년 시행 노동법을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김송희 <중국 농민공의 주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8.

64) 張燕玲 「尋找文學的立足點」:《黃河文學》, 2011年02期, 8-10쪽.

65) 8장 3절 221쪽: 「村庄, 在某種意義上, 是一個民族的子宮, 它的溫暖, 他的營養度, 他的整體技能的健康, 決定着一個孩子將來身體的健康度情感的豐富度與智慧的高度。」

- 박현숙 〈중국농민공의 발생과 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9.2.
- 申宇澈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의 基本的 權利와 그 保障制度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 吳江崑 〈베이징 농민공 가정 자녀들의 교육문제 : 실태와 발생원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 윤종석 〈중국 농민공의 사회경제적 권리 형성에 관한 연구 : 시민권적 관점에서의 지역 간 비교 분석〉
- 李民子 〈중국의 經濟改革과 農民工〉 서강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7.2.
- 이성규 〈중국 농민공의 고용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 2008.2 .
- 이혜원 〈建立中國農民工社會保障制度的可行性研究-중국농민공사회보장제도의 설립의 가능성 연구〉;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사논문, 2006. 2.
- 황기 〈중국 농민공에 따른 도시선교적 제안〉 침례신학대 대학원 석사, 2010.2.
- 김병철 〈중국 비정규직 현황 : 농민공을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9월 vol. 8 no. 8, 한국노동.
- 김영근 〈중국 '민공' 문제와 동아시아 노동·환경운동의 연대〉; 《녹색평론》 2007년 7/8 월 통권 제95호.
- 다문화지도제작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문화관광부, 2007.
- 류제기 역 〈중국문화관계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예술·종교 관련 주요법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 박기형 〈중국, 농민공문제의 실상과 해결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박선영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역사적 정체성 :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 朴壯載 〈중국 農民工의 발생 배경과 그 영향〉; 《中國研究》 2000. 12 제26권, 韓國外國語大學校外國學綜.
- 朴貞淑 〈상해와 도시농민공의 이주와 삶, 그리고 공생 : 왕안익 《부평》에 관한 소고〉; 《중국어문학논집》.
- 방혜정 〈중국 들판의 작은 불씨, 농민공 권익보호 비정부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8.
- 申東潤 〈중국 유동아동 의무교육의 현황과 정책 : 도시 농민공자녀의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國學論叢》.
- 신동윤 〈중국의 민공황(民工荒)현상과 전망〉; 《中國學論叢》 2008년12월 제26집, 韓國中國文化學會.
- 양순창 〈민공조 문제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권위에 미치는 영향〉; 《대한정치학회보》

2000. 겨울 제8집.

- 이동훈 <중국 최대 사회문제로 떠오른 농민공 : 연쇄 파업·자살... 중국 경제 최대 뇌관 농민공들 왜 폭발했.>
- 이민자 <중국 농민공(農民工)과 호적제도 간의 모순>;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1기, 한국정치학회, 1998.6.
- 李民子 <중국 농민공의 계층분화와 주변화 : 불법 이농민에서 도시빈민으로>; 《新亞細亞》 2007년 여름 .
- 李民子 <中國 農民의 都市勞動者化 : 農民工이 經濟改革에 미치는 影響을 中心으로>; 《新亞細亞》.
- 이민자 <중국 도시의 농민공 자녀교육 : 국가와 민공자녀학교의 갈등과 타협>; 《東亞研究》2008년8월 제55.
- 이민자 <中國의 시민권 제한정책과 農民工의 同化 : 北京과 珠江三角洲를 中心으로>; 《한국정치학회보》.
- 이병헌 지음 ; 권호 역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시간의물레》, 2006.
- 李成哲, 李治翰 <조화사회와 농민공의 현실 : 영화 <미꾸라지도 물고기다>를 중심으로>; 《中國研究》.
- 장영석 <농민공, 중국 계급문제의 지구적 맥락>; 《황해문화》 2008년 겨울 통권61호, 56-75쪽, 새얼문화재단.
- 장영석 <중국의 신세대 농민공의 계급 형성 : 난하이 혼다자동차 파업 분석>; 《동아시아브리프》 2010년 8.
- 정중호 <이농민에서 기업가로 : 북경 '절강촌(浙江村)' 유동인구(流動人口)의 사회계층분화>; 《한국문화인류
- 정현욱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그림자, 농민공 : 농민공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중국 경제성장>; 《민족21》.
- 최현실 <최근 중국의 농민공 동향 : 상하이 여성 농민공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2010년 5월 제49.
- 한도현[외] 지음 <이주노동자들의 권익과 시민공동체>;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백산서당, 2010.
- 황경식 著 <書評> / 김용환 評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도덕의 모색 : 「시민공동체를 향하여」>; 《서평문
- 황경진 <2009년도 중국 농민공의 취업실태>;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6월 vol.8no.5, 한국노동연구원,
- 江河 <梁庄-中國鄉村的典型性縮影>; 《环境与生活》 2011年02期.

- 谷亞光〈抒寫隱形的中國—評梁鴻《出梁庄記》〉社會科學論壇, 2013年12期.
- 杜贊奇〈文化、權力與國家——1900-1942年的華北農村〉江蘇人民出版社, 2003版.
- 羅嶼〈對話梁鴻農民進城后,反而更加農民化〉:《小康》2013年03期.
- 羅嶼〈對話梁鴻生活在都市 我們應有原罪感〉:《小康》2011年01期.
- 羅嶼〈走出梁庄,却走不進城市〉:《小康》2013年03期.
- 梁鴻〈鄉村的疼痛—舒晉瑜〉:《文學自由談》2011年02期.
- 梁鴻〈中原突破〉的陷阱——閻連科、梁鴻對話錄—閻連科:《小說評論》2003年01期.
- 呂曉潔〈現代村庄的另類呈現—評梁鴻《梁庄》〉:《寫作》2011年05期.
- 劉濤〈梁庄的內與外—論梁鴻〉西湖, 2013年10期.
- 劉莉〈怎奈故鄉變他鄉—梁鴻訪談〉:《中國圖書評論》2011年06期.
- 劉芳〈梁庄—一個作家眼中的中國鄉村〉:《晚報文萃》2011年12期.
- 劉炎迅〈尋找散落在中國的梁庄〉中外文摘, 2012年21期.
- 李冬雪〈梁庄新‘影像’:進城農民的命運和表情〉:《中國圖書評論》2013年06期.
- 李冬雪〈鄉土社會:時代的傷口—從《中國在梁庄》到《出梁庄記》〉紅岩, 2013年04期.
- 李林櫻〈矛盾與探索:采寫報告文學的反思[J]〉:《當代文壇》1989,2.
- 李洱〈非虛構與虛構(上)〉上海文學, 2012年03期.
- 李洱·張莉〈非虛構與虛構(下)〉上海文學, 2012年04期.
- 林憚,慧遠〈梁庄里的中國—評梁鴻《出梁庄記》〉:《工友》2013年06期.
- 林賢治〈國民性批判問題的札記(節選)〉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0.
- 旁听生〈你的村庄,我的故鄉〉:《文苑(經典美文)》2012年03期.
- 樊星〈新生代文學中的“血”—當代文學的意象研究筆記〉成都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年06期.
- 卜艷〈衰敗與衝突〉:《中國老區建設》2012年12期.
- 蘇敏〈解讀“非虛構性書寫”〉山東文學, 2014年02期.
- 宋桂花〈梁庄:中國現代鄉村的一份活檔案—評《中國在梁庄》〉:《山花》2013年02期.
- 岳雷波〈農村留守婦女問題與新農村建設[J]〉湖北經濟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7.3.
- 余英時〈自序[A].士與中國文化[C].上海〉上海文化出版社, 1987.
- 閔慶梅〈鄉村! 鄉村!—讀《中國在梁庄》想到的〉五台山, 2011年03期.
- 伍茂國〈欲望敘事·偽欲望敘事·敘事倫理——從電視劇《蝸居》說起[J]〉中州大學學報, 2011.2.
- 吳旭〈關於中國農村留守婦女現狀問題的綜述[J]〉法制與社會, 2008.1.
- 王南〈更多的《中國在梁庄》—梁鴻筆下的中國鄉村〉:《今日中國(中文版)》2011年03期.
- 王富仁〈河南文化與河南文學—梁鴻《在邊緣與中心之間—20世紀河南文學》序〉渤海大學

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8年05期.

王石川〈不了解農村何以認識中國〉:《中國工人》2011年02期.

王滬生〈我爲何最担心85后、90后農民工〉梁鴻訪談錄:《新民周刊》2013年28期.

牛若峰〈中國農業發展新階段的戰略與策略[J]〉河北學刊, 2000.5.

張跣,本刊編輯部〈精神返鄉與回不去的“梁庄”——“梁庄系列”作品研討會紀要〉:《南方文壇》2013年06期.

張新贊〈一個村庄的生與死——評《中國在梁庄》〉:《中國圖書評論》2011年06期.

張燕玲〈尋找文學的立足點〉黃河文學, 2011年02期.

張云〈中國鄉村的痛與悲——評梁鴻的《中國在梁庄》〉:《山花》2012年14期.

張遠〈從梁庄出發,尋找看不見的中國〉:《企業觀察家》2013年06期.

張俊才,張倩〈5000萬“留守村婦”非正常生存調查[J]〉:《中國經濟周刊》2006.4.

張輝,陳娜〈重視農村留守婦女問題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J]〉:《黨史博采理論》2006.7.

程燕〈《中國在梁庄》中農村三代人的哀痛與無奈〉:《短篇小說》2013年12期.

丁翠榮〈關於農村“留守婦女”生活狀況的調查與思考[J]〉:《科技信息(學術研究)》2007,(26).

朱梅,應若平〈農村“留守妻子”家務勞動經濟價值的社會學思考[J]〉湖南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5.6.

周森龍〈非虛構敘事藝術:報告文學研究[M]〉北京,知識產權出版社, 2011.

陳利〈農村留守婦女的精神壓力和婚姻危機[J]〉:《甘肅農業》2006,(11).

秦香麗〈從“非虛構”來看新世紀鄉土文學的困境及出路——以梁鴻的《中國在梁庄》和《梁庄在中國》爲例〉:《創作與評論》2013年08期.

秋實〈觸摸中國鄉村的痛與悲——讀《中國在梁庄》〉:《中國合作經濟》2012年10期.

出梁庄〈見中國-楊慶祥-當代作家評論〉2014年01期.

馮黛梅〈無場所的記憶-埃米里奧·馬丁內斯·古鐵雷斯〉國際社會科學雜誌(中文版), 2012年03期.

何平〈非虛構寫作事先張揚的文學態度〉:《山東文學》2014年02期.

許鈞〈關注公共舞台後的私人空間[N]〉文匯報, 2005.6.6

邢華〈我們爲什麼要關注鄉村——與梁鴻對話〉:《黨員幹部之友》2013年03期.

黃敏〈農村“留守婦女”生存現狀及對策思考[J]〉安徽農學通報, 2007.

黃安麗〈農村留守婦女生存現狀的調查及思考[J]〉安徽農學通報, 2007.3.

### 【中文提要】

《中國在梁庄》是梁鴻分別于2008、2009年間用近5個月的時間深入河南穰縣一個小村落，進行調查採訪而完成，2010年在《人民文學》“非虛構”專欄刊發后，就引起了讀者強烈反響。該作品獲2010年度“茅台杯”人民文學獎非虛構作品獎、《亞洲周刊》2010年度非虛構十大好書、新浪2010年度十大好書和《新京報》2010年度文學好書。

“在很長一段時間內，我對自己的工作充滿了懷疑……甚至充滿了羞耻之心，每天在講台上高談闊論，夜以繼日地寫着言不及義的文章……這不是真正的生活……”在《中國在梁庄》的前言中，作者梁鴻如此剖析自我。于是她決定回到故鄉，用自己的脚步和目光丈量村庄的每一寸土地、樹木、水塘与河流，尋訪并記录下那些触目惊心的故事。

《中國在梁庄》記述了作者的故鄉梁庄近30年來的變遷。在書中，梁鴻通過口述實录、現場調查等方式講述了一個個具有典型性的人和人生故事，他們的情感和所面臨的問題傳達出了鄉村內在的生存狀態。《中國在梁庄》通過口述實录，現場調查的方式，現了梁庄近半个世紀的歷史命運和生存圖景。

《中國在梁庄》在現代轉型期經濟大潮沖擊之下，傳統農村日益破敗、消亡以及与之密切相關的“留守兒童”“留守老人”“農民工問題”“農村文化道德危机”等當代中國社會所面臨的諸多問題一一浮出水面。這就是中國農村的現狀，不得不引起人們的深思。

《人民文學》主編李敬澤評價道：“不會認識梁庄，我們或許就不會認識農村，不會認識農村，何以認識中國？”“三農”問題專家溫鐵軍認為：“這本書，寫梁庄，只是最近30年‘被’消滅的40萬個村庄的縮影。”〈大國敝村〉本報記者 郭建光《中國青年報》(2011年01月05日12版)

正如書上所說：“有些中國在北京，有些中國在重慶，有些中國在西北，有些中國在沿海，但更多的中國在梁庄。”

**【主題語】**

농민공(農民工), 양극화, 농촌, 梁庄, 梁鴻, 고향, 상실, 장소, 현대화  
(Rural)Migrant Workers, bipolarization, Rural, LiangZhuang, LiangHong,  
Hometown, Loss, Conflict, Modernization

투고일: 2014. 7. 15 / 심사일: 2014. 7. 20~8. 5 / 게재확정일: 2014. 8. 10